

지역 소식 통

정읍시, 기업과 함께
인구사랑 캠페인 본격화

정읍시가 핵심 인구정책인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지역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기업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기업체와 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1:1로 매칭되어 기업을 분기별로 방문하는 '기업 1담당제'를 활용해, '정읍사랑 주소갯기' 운동을 홍보하고 실제 정읍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주소 이전을 실천한 기업체에는 실질적인 혜택도 마련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정읍사랑 주소갯기' 운동에 성과를 낸 우수기업에 표창을 수여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기술사 입차료 지원사업 등 각종 기업지원사업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캠페인은 도시와 기업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실천형 시민운동으로 지역 고용 안정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화영 부안 부군수, 여름철 수상안전 강화 현장 점검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는 최근 폭염에 따른 물놀이객 증가와 집중호우로 인한 물놀이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4일 주요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변산해수욕장과 격포해수욕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과 안전물품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방학·휴가철을 맞아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변산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도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자 행동요령 안내 등 현장지도도 병행하였다.

정화영 부군수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물놀이 시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2025
학생맞춤 학부모교육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최근 정읍연지아트홀에서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주)좋은교육 김선에 대표를 초청해 '말 대신 마음으로(우리아이와 통하는 시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며 소통의 벽을 허무는 실제적인 방법을 학부모들과 공유했다.

김선에 대표는 "아이의 행동 뒤에 숨은 마음을 읽고, 부모가 먼저 감정을 정리하고 다가가야 한다"며 "말보다 마음으로 통하는 시간이 아이의 정서적 회복과 자기조절 능력 형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일상 속에서 아이와 더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생회복쿠폰 소비 캠페인 추진

정읍시, 시민의 생활안정 · 골목상권 회복 위한 현장 소통 · 사용 촉진

정읍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캠페인을 본격 가동하며 현장 소통과 사용 촉진에 나섰다.

시는 지난 24일, 샘고을시장에서 소비 릴레이 캠페인을 열고 소비쿠폰 사용 분위기를 확산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박일 시의회 의장, 최용훈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해 상인과 시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학수 시장은 "소비쿠폰은 시민 삶의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활한 지급과 적극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 시민이 참여하는 '소비 릴레이'를 목표로 한다. 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독려하고 소비쿠폰 가맹점 확대, 현장 캠페인, 홍보물 배포, 시청 홈페이지 내 사용처 검색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

지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향후 소비를 분석을 기반으로 소비쿠폰 사용 기반 연장이나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와 가맹점 확충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안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공식 안내 외에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으며, 카드사 캐시백을 사칭한 문자 클립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획재정부 찾아 내년 국가예산 사업 건의

김영식 고창 부군수, 대선공약 반영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 등 10건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가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대상사업과 현안사업 10건을 건의했다.

먼저, 김 부군수는 정성원 문화예산과장을 만나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197억원)'을 건의했다. 김 부군수는 올림픽 정식종목인 카누 슬라럼은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고창군은 부지확보 완료 등 사업추진 준비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용호 국토교통예산과장을 만나,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서해안(새만금~북쪽) 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서해안 섯드라이브 조성사업(구시포)(100억원)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196억원) 등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도 함께 건의했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가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대상사업과 현안사업 10건을 건의했다.

김 부군수는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그간 도로망에 집중되었던 서해안 남북축 연결기능의 철도 분산화, 접근성 개선, 물류비용 절감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임대한 안전예산과장을 만나 대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30억원)과 외촌지구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사업(340억원)을 건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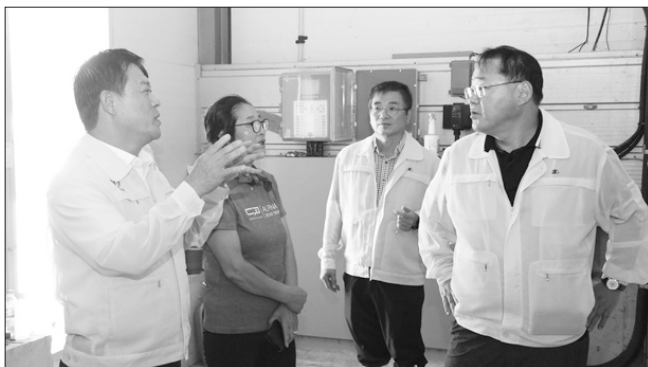
이학수 정읍시장, 양계농가 방문... 현장 대응 방안 마련

정읍시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피해가 우려되는 양계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함께해 폭염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학수 시장은 "축산농가는 폭염에 매우 민감한 만큼, 가축 생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적극행정의 시작"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이 시장은 △가축 폭염 스트레스 완화책 지원을 위한



정읍시는 지난 24일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피해가 우려되는 양계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별보급세 3억 300만원 확보 △축사 현대화 추진 시 기존 축사 면적 외 추가 허용을 위한 허가지침 마련 등을 전북도에 건의했다. 이는 단기적인 폭

염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으로도 의미를 더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진면 지사협, '동진 경로헤어당' 10월까지 운영

부안군보건소 · 부안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

부안군 동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종각)는 부안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동진 경로헤어당' 프로그램을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는 동진 경로헤어당은 혼자 병원을 찾거나 마음살을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부안군 보건소 간호 인력이 혈압, 혈당 등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에서는 스포츠 마사지를 수강한 교육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들이 함께 참여해 우울감 선별검사와 정서적 상담으로 어르신들에게 심리적 지지 기반을 제공했다. 동진헤어당은 미용, 건강, 마음돌봄까지 '찾

아가는 통합복지 서비스'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전종각 위원장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기우고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 경험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라며 "동진 경로헤어당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진면사무소 최정에 면장은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적극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고창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초고령사회 대응 선도모델 '주목'

고창군,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쾌거

고창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고창군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초고령사회, 활력 넘치는 시니어 라이프 in 고창'을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하여 다시 한번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는 민선8기 전국 기초지자체의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을 모색하기 위해 '회복력 도시(Resilient Cities)', 인간다운 도시(Humanitas Cities)'를 주제로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23~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경진대회는 전국 159개 기초지자체에서 401개 사례를 응모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91개의 사례를 선정

하고 24일 발표심사를 통해 7개 분야별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고창군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우리 동네 복지보안관 제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노인일자리사업의 다양한 일거리 유형을 제시하며 모범적인 초고령사회 대응 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봉사 경험이 풍부한 마을동가를 복지보안관으로 선정하여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마을주치의의사제 도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약자 '1천원 택시 운영 확대', '경로 목록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확대' 등 실질적 체감 복지를 실현한 정책들도 함께 소개되어 고창형 복지정책을 인정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회의 개최

부안군은 지난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정화영 부군수 주재로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준비 중인 하계올림픽 유치에 군이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북자치도가 주도하는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발맞춰 부안의 해양 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대회 유치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열렸다.

회의에는 체육, 해양, 관광 등 20여명 부서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요트·비치발리볼 등 종목 유치 가능성, 새만금 국제공항 등 접근성 확보 전략, 향우회·자매도시 전국 네트워크

확보 방안, 다분야 대규모 행사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유치전략을 구체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점검하며 실행 가능한 실행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정화영 부군수는 "부안은 새만금과 연계된 해안·갯벌 자원, 우수한 기후 조건, 수소·치유 클러스터 기반 등 올림픽 유치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며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중요한 축으로서 실질적 경기 유치와 지역 발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장애인복지관이 정보화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열린 '2025년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전북지역예선에서 본선 진출자 3명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읍장애인복지관, 국민행복 IT 경진 본선행

정읍시장애인복지관이 정보화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열린 '2025년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전북지역예선에서 본선 진출자 3명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정보활용 경진대회다.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포용 실현을 목표로, 디지털 정보검색, 실생활 서비스 활용, 문서작성 등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역량을 겨루는 자리다.

복지관에서는 평소 정보화교육에 구

준히 참여해 온 장애인 9명이 이번 대회에 도전했다. 이 가운데 정보 검색과 활용 능력을 인정받은 3명이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본선 진출자는 정보화교육 장애인 부문 2명, 장년층(55~64세) 부문 1명이다.

이들은 9월 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국 248명의 지역예선 통과자들과 함께 실력을 겨루게 된다.

이번 성과는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정읍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인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정읍=김대환 기자